

FSKD 학회 참석기

1. 일시 : 2006년 9월 24일 - 28일
2. 장소 : 중국, 서안(西安, Xi'an)
3. 참석자: 박한샘, 임승빈
4. 작성자: 임승빈
5. 참가목적: 학회 참가 및 발표
6. 전반적 의견

2006년 9월 24일 - 28일, 중국 서안에서 열린 ICNC'06-FSKD'06에 한샘이와 함께 참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학회의 수준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었지만, Accept rate가 13% 밖에 안 되어서(418 / 3197), 그래도 퀄리티 있는 논문이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학회에 참석하였다.



시내는 특이하게 당나라 때 만들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서안은 진시황릉과 병마용으로 유명한 곳이고, 오랫동안 중국의 수도로 이름이 알려진 큰 도시이다.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deposit 때문에 고생을 했다. 중국에서 어차피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둘 다 많은 돈을 환전해가지 않았는데, deposit으로 내야 하는 돈을 수

중에 있는 돈을 모두 모아도 힘든 돈을 요구해서 약간 고생했는데, 결국 돈을 깎아서 호텔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추후 학회에 참석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돈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회 날짜보다 하루 여유가 있어서 성서 역사 박물관과 Dayan 탑을 방문했고, 종루(鐘樓, Bell tower), 고루(鼓樓, Drum tower) 등을 가 보았다. 중국 시내의 건물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한다. 고루 밑에는 유명한 야시장이 있었다. 야시장은 매우 조잡하지만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었다.



학회장에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호텔에서 학회를 진행하였다. 특이하게 포스터 세션이 없고, 모두 발표로 이루어졌지만, 발표준비를 열심히 해 온 발표가 드물었고, 특히 Xidian 대학에서 낸 논문은 거의 다 받아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Xidian 대학의 논문이 많았고 또 수준도 매우 낮았다.



별로 긴장하지 않고 발표를 끝냈고, 질문사항으로 실험에 사용한 BN의 parameter 설정에 대한 질문과 ensemble의 경우 반복이 많은데 수행시간은? 실시간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주로 영상 인식과 관련된 논문과 mc-team관련 논문을 찾아 다니면서 들었는데, 발표 참석률이 50%가 안되고, 수준도 낮아서 듣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재이 있던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1. Image retrieval based on similarity score fusion from feature similarity ranking lists : 일본의 노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인데 아주 느긋한 목소리와 발음으로 인상 깊었다. 그림에서 텍스처 성분을 분석하여 5가지 정도의 특징추출을 하고, 그 특징들을 랭킹 리스트를 생성하여 특징값을 fusion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실제 실험 데이터가 크지 않고 fusion 방법도 기존의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2. A context-aware music recommendation agent in smart office: 한샘이가 발표한 논문과 내용이 비슷해서 들어보았는데, 경희대를 다니는 중국 학생이 발표하였다. Ubiquitous 환경에서 음악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그를 분류하여 음악 DB를 구성하고 mood를 추론하고 다수의 사용자의 preference를 고려하여 음악을 추천해주는 큰 시스템을 모두 설명하여 많이 기대를 하였으나 단지 mood를 분석하는 것 이외에 실험을 진행한 것도 없으며 기존에 잘 알려진 것 중 심플한 특징추출, 분류(KNN), 추론(Naive Bayes), 정보 결합(Majority voting)방법을 사용한 정말로 허무한 논문이었다.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내용을 너무 포장하여 말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몇 가지 질문을 공격적으로 던지게 되었다.
3. Face detection using kernel PCA and imbalanced SVM : 들은 발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으로서, 얼굴 이미지와 같이 데이터를 모으기가 어려운 샘플에 대하여 SVM을 수행하면, 양이 적지만 중요한 특징과 양은 많지만 중요하지 않은 특징을 가진 두 특징의 분류에서 양이 적은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강제적으로 옮겨 중요한 특징의 분류율을 높이는 imbalanced SVM 이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Keynote speech에서는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었다.

* Brain-like system, BYY Harmony learning, and statistical reasoning (Bayesian Ying

Yang system)

지식기반 시스템에서 러닝과 확률모델 등을 40분 중 35분간 설명하고 제안한 Bayesian Ying Yang system을 5분간 설명하고 끝난 허무한 발표였다. YingYang은 음 양을 말하는 것이었고, 백그라운드 지식과 고수준 추론이 상호 영향을 주며 지식기반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내용이었다.

* Enhancing image retrieval by exploiting techniques of learning with unlabeled data

Semi-supervised 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learning을 하는 내용이었다. labeled data는 모으기가 어렵고 모두 labeling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unlabeled data를 이용하여 이미지 retrieval을 수행한다. 사람의 피드백이 있어야 가능한 방법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과 interactive learning과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으며 사람의 피드백이 계속 필요하다면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

* Local fuzzy models to adapt in a dynamic environment: An example in asset management

사실 이 초청강의는 크기도 크고, 내용이 많아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였는데 GE에서 나오신 분이 강의를 하였으며 매우 복잡한 내용과 복잡한 수식을 써서 설명을 하고 진화시킨 시스템을 몇 년 단위의 스케일이 큰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하는, 매우 복잡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 Domain specific information retrieval

특정 도메인에 한정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domain specific 정보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readability와 usability 의 균형을 맞추어 일반인에게 의학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용이었다.

마치며..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LNCS의 수준이 떨어져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열리는 학회는 별로 신용이 가지 않는 수준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학회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구에 대한 교류를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웠다. 그래도 초청강의에서는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었고, 중국의 오래된 수도를 방문했다는 점을 이번 출장의 소득으로 생각한다.